

책으로 살펴보는 학생운동의 역사

통사적 연구서 등 30여종에 이르러, 연구단계는 아직 걸음마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더 넓게는 조선의 해외유학생들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기도 하는 학생운동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련서적들은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30여 종에 이른다. 이들 책들을 통해 한국 정치·사회에 있어 학생운동의 역할과 위상을 읽어낼 뿐 아니라 역으로 학생운동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 정치·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볼 수도 있을 듯한데, 아쉽게도 학생운동의 전체적 흐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학문적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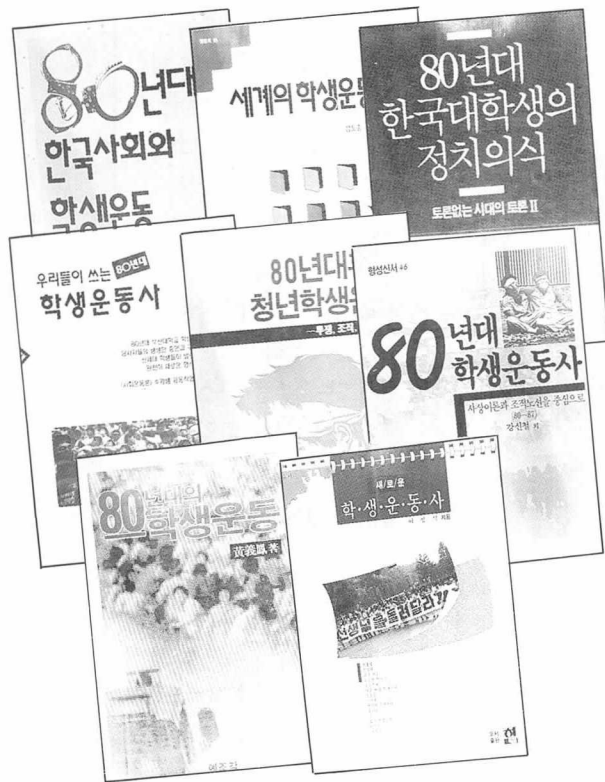
본격적인 학문적 분석은 드물어

우선 학생운동을 통사적으로 살핀 책으로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이재오, 형성사)를 꼽을 수 있다. 해방후부터 1980년대까지 학생들이 추구해온 이념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각 시기별로 시대적 배경을 살피고 운동의 전개양상과 그 역사적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

역시 학생운동을 통사적으로 살피고 있는 《새로운 학생운동사》(이정식, 힘)는 근대교육에 의한 학생계층의 형성과 태동기의 학생운동부터 출발, 80년대의 학생운동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역사 앞에 당당히 서는 고등학생'을 위해 펴낸다고 서문에 적고 있는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출간 후 출판사 사장이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일제하 한국학생독립운동사》(김성식, 정음사) 《일제하 광주학생민족운동사》(한정일, 전예원) 《항일 학생민족운동사 연구》(정세현, 일지사) 등은 일제 치하에서의 학생운동을 상세하게 기술한 책. 학생운동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는 해방공간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반탁반공학생운동 기념사업회가 펴낸 《학생건국운동사》를 들 수 있는데, 운동당사자들에 의해 편찬돼 시각이 우파 편향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학생운동의 양상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준다.

시기별로 볼 때 전 시기 연구성과의 일천함에 비추어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이는 80년대가 그 어느 시기보다 학생운동이 격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넓혀진 사회전반의 자유가 큰 몫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



서점에 나와 있는 학생운동사 관련서들.

이다. 종래의 팸플릿이나 유인물 등 이른바 지하출판물들이 햇빛을 보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80년대 학생운동사》(강신철 외, 형성사)는 80년 '서울의 봄', 광주항쟁 이후부터 87년 6월의 국민적 대전진을 맞이하기까지 각 시기마다 두드러지는 제반 학생운동그룹의 사상과 전략, 전술, 조직노선 등을 검토, 상호비교한 책. 《80년대 한국사회의 학생운동》(한용 외, 청년사)도 조직노선이나 사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객관적 정세의 변화와 발전, 정치권력과 힘관계의 추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피고 이후의 전망에 대해 언급한 것이 특색이다.

학생들의 사회인식 고찰도

학생운동 내부에서 잉태된 논쟁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책도 있다. 《학생운동논쟁사 1·2》(김광 외, 일송정)가 그것으로 제1권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87년까지의 논쟁들을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88년 이후부터 90년까지의 논쟁을 정리한 제2권에서 이른바 '주사파'라 불리는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논쟁이 핵심으로 부각된다. 통일노선,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변혁 등 당시의 상황을 해석하는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한국학생운동은 그 강한 영향력에 비해 아직 연구는 걸음마 단계이다.

이고 구체적인 운동방향 등에 대한 논쟁들을 통해 학생운동의 이념적 흐름을 읽게 해준다.

대부분 저자의 약력이 생략된 이들 책들은 80년대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직접 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적이고 내용 또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조직이나 노선의 변화를 서술한 데 그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연세대 이신행 교수가 수업시간 학생들이 토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엮은 《80년대 한국대학생의 사회인식》(전예원)은 비록 본격적인 학생운동연구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되는 학생들의 의식을 고찰했다는 데서 눈여겨 볼직하다.

학생들의 수업자료가 토대가 되어 출간된 책은 이밖에 《우리가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김형률 엮음, 여름3)가 있다. 이 책은 93년도 1학기 부산대 사회학과 수강생들이 조별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 제출한 것을 편집한 것으로, 신세대 대학생들이 80년대 부산대 학생운동 당사자들의 증언과 구술을 중심으로 80년대 학생운동사를 재구성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이밖에 정부의 학생운동 규제정책에 따른

학생들의 순응요인과 불응요인을 경제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익-비용분석기법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학생운동과 규제정책》(이상안, 대영문화사)은 학생운동을 보는 관점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침체와 위기국면으로 비춰지는 90년대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방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경실련 대학생회가 펴낸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비봉), 서울대 김영국 부총장의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대왕사)은 우리나라 학생운동이 위기국면을 맞게 된 것은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 정치현실이 학생운동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학생운동 주체세력의 정치투쟁 일변도의 운동논리가 일반 대중을 운동으로부터 유리시킨 데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생운동이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운동논리를 다원화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비폭력을 건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외국의 학생운동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특징이나 방향성을 밝히는 데는 외국의 학생운동 사례도 좋은 비교 연구자료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과 우리나라 학생운동을 비교하여 살펴거나 외국 학

“이름모를 꽃들의 신비에 매료됐죠”

《지리산의 꽃》의 사진작가 송기엽씨



표지사진을 찍은 송기엽씨.

여수리,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지난 1년6개월 동안 지리산에 거의 살다시피하며 사진작가 문순화씨와 함께 찍은 것을 고르고 추려 엮은 《지리산의 꽃》(평화출판사)은 송기엽씨(58, 송기엽사진연구소 대표)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줬다. 30년 가까이 자연을 소재로 한 사진을 찍어왔지만 하나의 주제, 특히 꽃에 대한 집중촬영은 그의 사진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리산 겹겹의 능선을 배경으로 함초롬히 핀 노란 원추리를 찍은 표지사진은 지난해 초여름 노고단에 올라가 포착했다.

“원추리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지와 초원에서 자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유난히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녀 야생화 중에서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산에서 더욱 강렬한 색감을 풍기죠. 특히 지리산 노고단에 군락을 이룬 원추리는 야생화의 으뜸으로 칩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소염, 지혈, 이뇨 등의 약재로도 쓰이구요.”

원추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산야 곳곳에 핀 이름모를 꽃들은 송기엽씨에게 모두 오묘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식물학자 이영노박사와 함께 꽃의 개화기에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는 꽃들의 신비를 카메라에 담으려고 송기엽씨는 지리산에 천막 치고 살다시피했

다.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 산중에서 폭우를 만나면 천막 안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오들오들 떨곤 했죠. 며칠이 가도 비가 안그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슬을 머금은 해맑은 꽃들을 보면 배고픔도 잊고 서터를 놀러대곤 했어요.”

이제 사진가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든 송기엽씨는 ‘한국의 자연’으로 사진의 마무리를 맺고 싶다. 지리산을 끝내자마자 한라산의 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고, 설악산도 서너번 다녀온 터다. 백두산엔 이미 여섯차례 올라 웅장한 한민족의 젖줄에 초점을 맞춰 두었거니와 올 여름에도 두번의 여정을 예약했다.

꽃에 대한 매료는 사진에 입문하며 ‘자연’을 주 소재로 할 때부터 예정됐던 셈이다. 신문사 주최 〈한라에서 백두까지〉 탐사에 초대되기도 했고 《한국의 자연》(84)의 사진집도 발간했다. 이제 송기엽씨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소재로 한 사진백과를 내는 것 외에 후배들을 위해 꽃 촬영의 기초를 설명한 ‘입문서’도 출간할 예정이다.

— 김지원 기자

한국사회에 있어 학생운동은 역사흐름의 조타수 역할을 해왔다. 그 힘은 정권을 두 번이나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성과가 큰 만큼 학생들의 희생 또한 엄청났다. 4·19 35돌을 맞아 점검해보는 학생운동에 관한 서적들은, 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정리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서 아쉬움을 던진다.

생운동 사례를 다룬 책들도 여럿 있다.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기는 하지만 외국의 학생운동 연구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일본의 경우가 압도적이다.

《전학련 연구》(정재동 편역, 온누리)는 ‘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의 투쟁사와 이론, 오늘의 동향을 보는 각 당파의 태도를 분석한 것으로 40년전 일공주도하의 전학련의 탄생부터 60년 안보투쟁, 60년대 후반의 일련의 대학분쟁과 분과투쟁, 현재의 도시형 게릴라전을 포함한 전학련의 흐름을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정리했다. 일본 KK베스트북 출판사가 1984년 출판한 ‘삼화전공투’를 완역한 《전공투》(기하라 게이치 외, 현대평론, 백산서당)는 코믹한 삽화와 풍부한 현장 사진과 함께 1948년 전학련 결성부터 1972년 연합적군의 활동 및 전국전공투시대까지 일본 학생운동의 전반적 흐름을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학생운동사》(김진 편역, 백산서당)는 각 계파간의 전학련 주도권 쟁탈을 위한 이념적 대립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일본학생운동연구》(윤경철, 정신문화연구원)는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일본학생운동연구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학생운동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책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각국의 혁명사나 운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57년 발간된 《독일학생운동사》(김성식, 일신사. 제3기획에서 1987년 김성식 전집으로 재간)는 당시의 강의안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좌파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한국학생운동》

(홍광엽 외, 정신문화연구원)은 서구와 일본의 신좌익 운동과 한국학생운동을 비교, 고찰한 책.

한편 여러 나라의 학생운동을 함께 살피고 있는 책으로는 《세계학생운동, 격동의 현장》(서시주, 백양) 《세계학생운동사》(김도중 편역, 힘)가 있다. 앞의 책이 연합통신 기자인 저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책인 데 비해 뒤의 책은 비록 편역서이기기는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 세계전역의 15개국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학생운동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이왕에 출간된 학생운동사 관련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학문적 체계를 갖춘 연구논문을 수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영향력에 비해 연구는 ‘걸음마’ 단계

관련서적들을 일별해보는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학생운동은 그 지속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권을 두 번이나 바꾸어놓을 만큼의 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연세대 김도중 교수는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정치현실 하에서는 학생운동을 연구하는 데 암암리에 위협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비교적 자유스러워진 현재도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치 못한 것은 학생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으로 이는 학생운동을 현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계의 풍토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학생운동을 사회에 존재하는 영향력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설명적 분석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 현상은 사회과학의 대상”이라며, 학생운동연구의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비록 80년대를 들썩이던 노도와 같던 힘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40여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학생운동은 지금도 전국적 조직을 지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폭발력 있고 집결력이 강한 운동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조국을 세우는’ 학생운동의 주·객관적 성격과 특징, 역사와 사회적 의미, 영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서둘러 진행되기를 4·19를 맞으며 기대해 본다. <박남정>